

'위기의 전남 쌀 구하자'... 쌀 소비 촉진 향토업체 찾아서

(9)누르미

2대째 가업을 이어 수제 누룽지를 제조하는 전남 쌀 식품가공업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장성에 위치한 '누르미'로 건강한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 전남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달 농협에서 주관한 2024 K-라이프스타에 참여한 누르미 성예정 대표(왼쪽). 그가 만들어 판매하는 가마솥 전통 수제 누룽지.

2대째 이어온 전남 가마솥 전통 수제 누룽지

16일 누르미에 따르면 성예정(43) 대표가 지난 2021년 5월 장성군 동화면에 HACCP(해썹)인증을 받은 시설을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현재 장성 가마솥 전통 수제 누룽지(일반미·현미)와 현미칩, 고소한 수제 누룽지와 꿀의 만남인 꿀농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제품은 광주·전남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과 광주 신세계·롯데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남도장터, 네이버 플레이스토어 등 온라인에

서 판매되고 있다.

가마솥 수제 누룽지는 백숙, 사브사브, 라면 등 다양한 요리에 응용할 수 있어 많은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제조 과정은 쌀을 세척해 밥을 짓고 가마솥에서 150℃-200℃ 열로 재가한 후 건조 포장하면 완성된다.

이러한 누룽지에 지난해 사용한 쌀의 양은 12t 정도를 사용했으며 올해는 매출이 늘어 20t 가량을 소비할 예정이다.

성 대표는 귀농 청년인으로서 쌀농사도

사업 위해 대기업 연구원 포기...2021년 5월 회사 설립

지역쌀 12t 사용...증류주 등 대체 가공 식품도 도전

병행해 직접 재배한 쌀과 장성을 포함한 광주·전남 쌀만을 고집해 사용하고 있다.

올바르고 안전한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매출도 일정 부분 상승하고 있는 누르미는 지난 9월 장성산 'K-푸드' 선전시

에도 참여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농협에서 주관한 2024 K-라이프스타(12월6일-8일) 참여 업체로도 선정돼 전통 수제 누룽지와 장성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돌아왔다.

그 결과 미국 H마트와 5천개 물량 계

약이 성사돼 내년 1월 중 본격적인 수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듯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누르미의 앞으로 계획은 액상형 쌀 가공 식품도 선보여 쌀 소비 촉진에 매진할 생각이다.

성예정 대표는 "매출이 상승할수록 지금 장소는 협소하고 현대화에 발맞춰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몇 년 안에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라며 "이전할 공장은 자동화·수제 누룽지를 만들 수 있는 복합인증

가공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이전에 대학연구단지 모대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했지만, 가업을 받아야 한다는 부모님 설득에 연구자의 길을 포기하고 내려왔다"며 "부모에게 누룽지 가공 기술 등은 잘 물려받았지만, 연구원 생활의 탐구·개발은 멈출 수 없어 올해 전통주 지도자 자격증까지 합격해 앞으로는 막걸리와 증류주 같은 액상형 쌀가공 식품에도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인태호기자

광주은행, 글로벌 보안 경쟁력 강화

국제표준 신규 취득...보안체계 선진화 구축 결과

광주은행은 16일 "최근 정보보호 경영체계 국제표준인 ISO/IEC 27001,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관리체계 ISMS, ISMS-P의 인증·심사를 모두 통과해 은행의 정보보호 보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가 제정한 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으로서 광주은행은

행은 조직, 인적, 물리·기술적 보안의 4개 영역, 총 93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통합 인증 제도인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과 ISMS-P(Personal Informatio

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도 2019년에 국내 은행권 최초로 취득해 5년 연속 유지·갱신중이다.

이번 인증 취득·갱신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보안체계 선진화 추진에 대

한 광주은행의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로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안 경쟁력은 물론 개인신용정보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보여준 '정보보안 체계 선진화' 구축의 결과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당행의 전산

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안정성에 대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SNS 유명세...광주신세계, 하트 티라미수 팝업 '인기'

오는 1월9일까지 팝업스토어
오리지널·밤 등 7가지 맛 판매

(주)광주신세계가 지난 13일부터 본관 지하 1층에서 선보이고 있는 '하트 티라미수'가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월9일까지 SNS에서 유명세를 탄 깨먹는 '하트 티라미수' 팝업스토어를 연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당도가 가장 낮은 오리지널, 레스스윗(less sweet), 솔티 카라멜, 피스타치오, 레몬 얼그레이, 쿠키엔밀크, 밤 등 총 7가지 맛의 티라미수를 선보인다.

고객들은 국내 최초로 초콜렛으로 된 티라미수 겔면을 독특 깨서 먹는 독특한 형태의 티라미수 케이크를 구매하기 위해 오픈런과 웨이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부드럽고 달콤한 밤 크림에 밤



광주신세계는 오는 1월9일까지 본관 지하1층에 '하트 티라미수' 팝업스토어를 열고 오리지널부터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화제성으로 유행이 시작된 밤 티라미수까지 총 7가지 맛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시럽을 적신 시트로 인기가 높은 밤 티라미수는 2024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 유행이 시작되면서 화제성이 높아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다.

대표 제품은 당도가 낮은 오리지널(2만6천원), 레스스윗(2만7천원), 피스타치오 티라미수(2만8천원), 밤 티라미수(3만원)이다. /정은솔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크리스마스 포토 이벤트

문화센터 수강생 대상
크리스마스 강좌 다채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는 1층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공간에서 핀란드 공식 인증 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포토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센터 수강 고객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핀란드 북부에 위치한 로바니에미 마을의 공식 인증 산타와 함께하는 포토 이벤트와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도 직접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더불어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드는 크리스마스 바람뿔, 초콜렛 케이크, 쿠키 하우스 및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강좌도 준비돼 있다. /정은솔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공간에서 고객이 핀란드 공식 인증 산타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착한금융생활

우체국 금융

시골에서 낙도까지, 전국 방방곡곡 우체국 전국 네트워크서비스
저축 후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체국 금융서비스
멀리 계신 부모님께 집배원이 직접 용돈을 안겨드리는 우체국 용돈 배달 서비스